

에너지 단신

▶ 산자부 장관 초청, 이란 석유장관 회담

플랜트업계의 대이란 진출 확대 기대



장가네(Bijan Namdar Zanganeh) 이란 석유장관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지난 4월 10일 신국환 장관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저녁에는 신장관 주최로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이란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플랜트업체와 이란산 원유도입량이 많은 정유업체도 참석했다.

산자부에서 개최된 이날 회담에서 양국장관은 작년 2월 신장관의 이란 방문에 이은 금번 석유장관의 방한으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원유교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를 다양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장가네 장관은 한국의 LNG 수요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는 한편, 양국간 에너지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 '발전회사민영화기본 계획' 확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정부안 민영화계획 최종확정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9일 기획에 산처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민영화대상과 일정에 있어서 수력·원자력발전회사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1·2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는 2개사를 민영화하되 2002년 상반기중 먼저 1개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을 진행시키고,

▷2단계는 1단계 민영화 직후에 3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

민영화방식으로 1단계 민영화에서는 회사별로 주식매각방식을 채택하며, 경영권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다수의 국민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최대한의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증시상장을 통한 기업공개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발전회사 경영권매각은 1인 1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에 대

한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동 기본계획의 확정 후, 민영화업무를 맡게될 매각자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한다.

▶ 행자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대폭강화

짐질방, 신후조리원 등 7종, 추가지정 4월부터 짐질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아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최근 다중이용업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 소방법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 동안 영업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고시원, 짐질방, 산후조리원 등 7종의 신종자유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을 발급 받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내장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지하층 뿐 아니라 지상층의 다중이용업소에도 너비 0.7m 높이 1.5m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토록 했던 소화기를 33㎡(10평) 이상의 거실에 각각 설치토록 해 초기에 소화기를 유효하게 사용토록 했다.

특히 시행령은 파이프를 통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시설을 이송취급소로 규정·신설, 위험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상 11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지하상가 등 화재시 피난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유도등의 예비전원 성능을 현행 20분에서 60분으로 유지토록 대폭 강화했다.

▶ 정유업계, 2년 연속 적자 기록

석유수요감소, 환율상승 등 악재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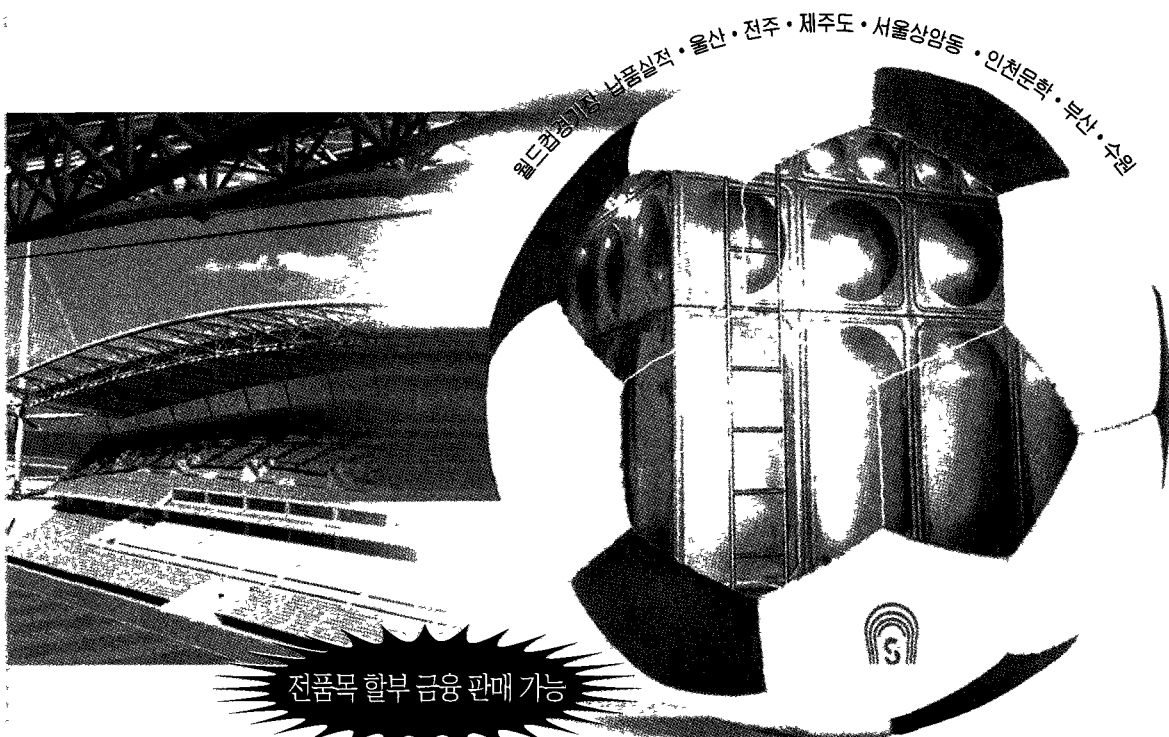
국내 정유사들의 지난 2년간 수익 실적감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주) LG칼텍스정유 등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사들은 모두 237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전년인 2000년 2195억원 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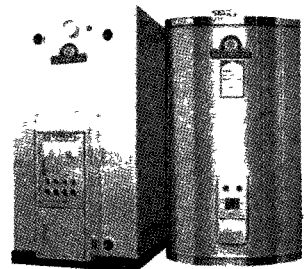
특히 정유사업 부문만을 분리해 평가할 경우, 정유5사는 지난해 총 5564억원의 손실을 내 2000년 4792억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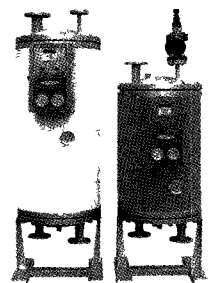
2002 월드컵 삼양무지개 보일러가 함께 됩니다.



전품목 할부 금융 판매 가능



축열식전기보일러/온수기



순간온수가열기

▶ 생산품목 ◀

- | | | |
|-------|-----------------|-----------------|
| 보일러류 | • 수관식보일러 | • 노통연관식보일러 |
| | • 초소형 노통연관식 보일러 | • 무압관수식보일러 |
| | • 목욕탕용보일러 | • 관류형 스팀보일러 |
| | • 진공 온수보일러 | • 입형 가스, 기름보일러 |
| | • 열매체보일러 | • 축열식 전기보일러/온수기 |
| | • 화목보일러 | |
| 압력용기류 | • 스텐레스 관벌탱크 | • 온수기열탱크 |
| | • 순간온수가열기 | • 각종유류탱크류 |
| | • 압력용기류 | • 열교환기 |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 **삼양무지개보일러(주)**

본사·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마 102호
TEL: 031)431-3219, 432-3291 FAX: 031)433-4267
http://www.syboiler.co.kr

에너지 단신

비해 무려 772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유업계가 이처럼 2년 연속 적자의 수렁에 빠진 것은 전반적인 국내 석유수요의 감소와 정유시간 치열한 출고가 경쟁, 그리고 석유제품수입사를 포함한 석유 공급자간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환율상승으로 환차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정유업계측은 "석유 수입자유화 이후 휘발유를 비롯한 국내 유류가격이 제조원가보다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과잉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정유업계의 어려움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정유업계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43조4931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1.4% 감소했다.

▶LP가스 도시가스 전환시 시설철거는 판매사업자가 해야

산자부, 시설철거 내용 신설

연료가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시 기존의 가스시설에 대한 철거를 판매사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인천 부평 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가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기존 LP가스시설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도시가스로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동종 사고의 재발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도시가스사업자의 전화사실 통보 의무화와 함께 시설철거 또는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에 연료가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 수요자 또는 기존 가스공급자에게 기존시설을 철거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수요자시설에 최초로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 전에 기존에 설치된 LP가스 등 다른 가스시설의 철거 또는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가스를 공급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경우 용기 등 공급설비 소유가 판매사업자로 돼 있는 데다 소비자가 사업자를 교체할 경우 기존 가스공급자가 시설을 철거토록 돼 있는 만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환사실을 통보해 주면 시설철거는 판매사업자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단, 용기 등 시설이 소비자 소유일 경우 소비자와 협의해 적절한 보상을 한 뒤 기존 공급자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지난해 에너지절약사업 4673억원 지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 전년대비 13.9% 증가

에너지관리공단은 2001년도에 시행된 에너지절약사업에 전년대비 13.9%(571억원)가 증가한 총 4673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발표한 2001년도 자금지원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사업별로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경우 산업단지열병합과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자금수요가 전년대비 각각 100억원 이상씩 증가해 총 1830억원이 지원됐다.

또 절약시설설치사업은 각종 지원 활성화 조치의 시행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16.2% 증가한 2758억원의 자금의 지원됐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사업에 1023억원, 산업·건설·수송 분야 절약설비에 932억원, 자발적협약기업(VA)투자사업에 462억원, 수요관리투자사업에 333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반면 대체에너지보급사업에는 전년대비 27.4%가 감소한 총 8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올해 총 5222억원의 지원예산이 배정돼 지난달 31일 기준 현재 예산대비 32.7%인 1708억원이 기업체에 추천됐다고 밝혔다.

▶1~2월 에너지수입액, 작년비 26.9% 감소

원유수입금액 감소로 인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중 에너지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9% 감소한 51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1~2월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19.23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3.8% 낮아지고 도입물량(1억4천7백만배럴)도 정유업체의 정기 보수에 따라 18.5% 감소하면서 원유 수입금액이 무려 37.9%나 줄어든 덕분에 에너지수입액이 감소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도 도입단가 하락에 따라 8.1% 감소했다. 1~2월중 에너지소비비는 작년 동기보다 3.1% 증가했다.

http://www.ba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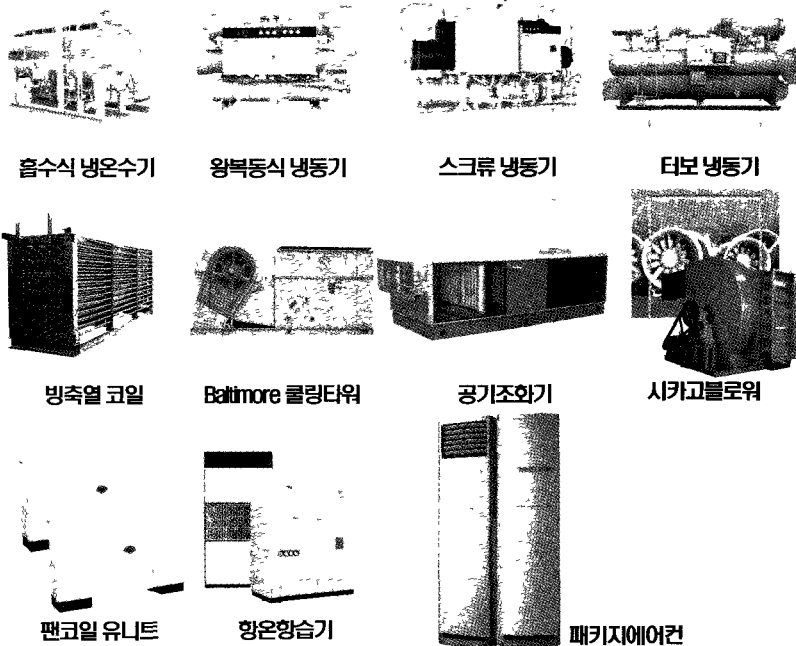


PAN은 범양의 영문표기인 Panocean의 첫음절을 형상화한 것으로 범천화적인 기업관과 초일류 냉동공조 기업으로의 성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초일류 냉동공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한의 기술과 가치의 추구로 40여년 외길을 걸어온-범양냉방
풍요한 세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힘찬기업
제2, 제3의 도약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왕복동식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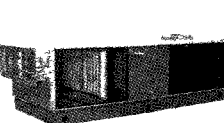
터보 냉동기



빙축열 코일



Ballmoure 쿨링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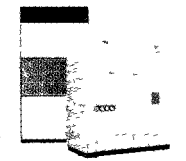
공기조화기



시카고블로워



팬코일 유니트



향온향습기



패키지에어컨

범양과의 만남은 당신의 민족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클로버서비스 : 080-022-8815-6